

한평생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9)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들로 내세워주시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통일 애국의 길에 나선 사람들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었는지 하는 것은 남조선에서 온갖 고초를 다 겪고있던 비전향장기수들을 공화국의 품으로 데려오도록 하신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비전향장기수들은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들이다. 수십여년간을 철창속에 갇혀 형언할수 없는 갖은 악행을 당하면서도 통일신념과 지조를 굽히지 않은 비전향장기수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신분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께서이다. 주체82(1993)년 3월 남조선에서 수십여년간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통일애국의 신념과 의지를 굽히지 않은 전 조선인민군 종군기자였던 리인모를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83(1994)년 2월 어느날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는 남조선에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을 어떻게 하나 모두 데려올 결심을 하고있다고 절절히 고사하시었다. 남조선에 있는 통일애국투사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시기 위해 마음 써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적인 첫 북남수뇌상봉의 나날 비전향장기수구원문제를 특별히 상정시키시고 6.15북남공동선언의 중요한 조항의 하나로 명문화하도록 하시어 그들이 공화국의 품에 안길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

시었다. 이렇게 되어 2000년 9월초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관문점 분리선을 넘어 공화국의 품에 안기는 사변적인 화폭이 펼쳐지게 되었다. 지금도 민족의 강한 아들들이 오는것을 열렬히 환영하여 수백리 연도에 달려나와 환영의 꽃물결을 펼치었던 20여년간의 그날이 눈앞에 삼삼히 이르른다. 세계언론들이 대서특필한바와 같이 비전향장기수들의 공화국에로의 귀환은 《지옥행에서 락인행 에로의 인생전환》이었다. 력사를 거슬러보아도 세상에는 비전향장기수라는 말도 없거니와 이런 영웅전사들의 조국개신이라는 사변도 있어본적이 없다. 고구등서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이 극적인 사변, 세계가 경탄한 이 꿈같은 현실은 통일애국전사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불보다 뜨거운 사랑과 믿음, 숭고한 도덕의리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었다. 비전향장기수들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하고 웅심깊은 세계는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것이였다.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해온 비전향장기수들을 금방석에 앉혀 그들에게 이 세상 모든 영광과 행복을 다 안겨주시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심정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전향장기수들은 모두 애국자, 혁명가라



고 높이 불러주시며 그들을 공화국영웅으로, 조국통일상수상자로 내세워주시고 최상의 생활조건이 갖추어진 살림집들에서 마중껏 행복을 누릴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어 살림집주변에 소음은 없는가, 방에 해가 잘 드는가, 방안온도는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그들이 불편할때와 집문턱의 높이까지 헤아려주시었다. 이뿐이 아니다. 불굴의 신념을 안고 통일애국의 한길을 굳힘같이 걸어온 전사들의 위훈을 빛내

여주시려고 그들의 투쟁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들을 창작하도록 하여주시고 피흘리며 지켜 싸운 조국의 아름다운 산천과 약동하는 현실을 마음껏 보고 즐길수 있도록 사랑의 조치들도 끊임 없이 취해주시었다. 또 어느 깊은 밤에는 곁방인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비전향장기수들의 생활을 료해하시고 수십 가지 보약과 지팡이까지 마련해주시도록 하시고 희귀한 음식도 그들이 식탁에 먼저 오르도록 해주셨으며 인속명절날이면 민족음식을 잘 차려 대접하라고 오목까지

보내주시며 사랑에 사랑을 거듭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 그이의 따뜻한 사랑과 각별한 보살핌속에 비전향장기수들은 온 나라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여생을 기쁘고 행복속에 보낼수 있었으며 죽어서도 영생하는 값높은 삶을 받아안게 되었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어 비전향장기수들은 조국과 겨레가 알고 후대들이 기억하는 통일애국투사의 삶에 빛낼수 있었다. 리진덕

민족자주는 통일운동의 생명선

민족자주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공화국이 변함 없이 추켜들고 나아가는 기치이다. 민족자주! 결코 오늘날에 새롭게 들게 되는 말이 아니다. 70여년세월 겪어오는 우리 민족의 분열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민족문제해결을 위해 고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뇌리에 깊이깊이 새겨보는 말이다. 외세에 의해 강요된 민족의 분열을 끝내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업무를 이룩하기 위한 령정은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온 공화국의 자랑찬 행적이 뚜렷이 새겨져있다. 지금도 70여년전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민족자주의 리념, 민족대단결의 경륜에 깊이 감복하여 평양의 모란봉극장으로 구름처럼 모여들던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수백명 대표들의 붉게 상기된 모습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같다. 외세와 그 추종세력의 책동으로 민족분열이 고정화될 엄중한 위기가 조성되던 그때 공화국은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 밑에 온 겨레를 묶어세워 조성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투쟁하였다. 그후에도 공화국은 민족자주리념으로 일관된 통일방안과 제안을 내놓으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모든 통일강령들과 방안, 그 실현을 위해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

가 취한 조치들은 시종일관 조국의 통일을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한 것이다. 지난 세기 90년대에 겨레의 가슴을 통일열기로 끓이며 진행된 범민족대회와 민족통일대추전들 그리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이 땅에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의 새시대를 펼쳐놓았던 잊지 못할 2000년과 2007년, 평화변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었던 2018년의 경이적인 사변들은 공화국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민족자주의 리념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민족자주의는 조국통일대헌장에 관통되어있는 기본정신이며 통일운동의 생명선이라고 밝혀주시었다. 오늘날 민족자주로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온 겨레의 절절한 념원과 지향으로 되고있다. 남조선 각계에서도 《지금 민족자주나 외세추종이나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외세추종을 단호히 배격하고 민족자주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민족자주만이 해답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여 울려나오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기치따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조명숙

통일을 불러 해 외교포운동의 명망높은 활동가로 (3)



제일조선인운동의 앞길에 준엄한 시련의 시기가 닥쳐왔다. 1949년 9월 일본반동들의 야만적폭거에 의해 조련이 강제해산되었던것이다. 조련일군들은 공직에서 추방당하고 조련의 재산은 전부 몰수되었으며 하나밖에 없던 조선말신문인 《해방신문》도 폐간되었다. 그러나 한덕수선생은 조국과 동포들앞에 지닌 의무를 한시도 잊지 않고 새로 조직된 제일조선인중앙단체회의의 주위에 동포들을 묶어세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미국과 리승만미국당에 의해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의 죄행을 규탄하고 지지파관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동포들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속에서 1951년 1월 새로운 동포조직인 제일조선민주통일전선(민전)이 결성되게 되었다. 그러나 민전결성후 제일조선인운동내부에 끼여든 사대주의자들의 중동으로 엄혹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자들은 제주도에 공화국이 휘날린다고 해도 제일동포들의 처지는 달라질것이지 않다고 하면서 조직강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호》조항을 빼던지고 중주국혁명명을 부르짖었다. 결과 초보적인 생존권도 가지지 못한 동포들이 무모한 투쟁에 나섰다. 그들은 더운 피를 쏟았으나 우리 동포들의 파란수가 일자리를 잃고 거리에 쫓겨났으며 수많은 동포상공인들이 기업권을 빼앗기고 파산당하는 등 엄혹한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하여 한덕수선생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위대한 전승을 마련하시느라 불철주야의 분망한 나날을 보내고계실 김일성장군님께 제일조선인운동의 운명구원을 바라는 청을 올리게 되었다. 펜을 달리는 그의 심중에 그에게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피로움과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밀물처럼 차올랐다. 그가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 뵈은것은 주체37(1948)년 12월이였다. 일본반동들이 부당한 조건을 내걸고 그들의 출국을 끝내 승인하지 않았지만 민족의 태양의 품을 꿈꿨으며 그리던 한덕수선생을 비롯한 애국인사들은 쫓배를 타고 모진 고생끝에 평양으로 왔다.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의 나라에서 당하는 망국노의 실상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는가 하는것을 자신께서 직접 체험해보자 잘 알고있다고 하시며 동포에의 따뜻한 정을 보여주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련대표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며 제일조선인운동의 장래를 부탁한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그런데 그 하늘같은 믿음에 보답하지 못하고 이렇듯 제일조선인운동의 운명구원을 바라는 청을 올리게 되었으니 그의 심중이 얼마나 무거웠으랴.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41(1952)년 12월 최고사령부에서 한

덕수선생의 편지를 가지고 온 연락원을 만나주시었다. 복잡한 사태의 본질을 순간에 꿰뚫어보신 그이께서는 제일조선인운동을 조선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며 제일조선인들의 민족적권리를 지키고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족적애국운동으로 전개시키는것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고 제일조선인운동을 구원하는 길이며 제일동포들의 념원과 지향에 맞는 참된 애국의 길이라고 간곡히 가르쳐주시면서 이러한 의견을 한덕수동지를 비롯한 제일조선인활동가들에게 전하여 주셨다. 잘못 나가던 제일조선인운동의 향로를 단번에 바로잡는 로선전환 방침에 접한 한덕수선생은 회색 천군마를 얻은듯한 크나큰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제일조선인운동에서 고결적인 사대의 후과를 가시기 위해 철리 받길도 가리지 않았고 침식을 잊어가며 집필활동도 벌였으며 치열한 론쟁과 진지한 설득으로 사람들의 머리를 티워주시기도 하였다. 마침내 1955년 5월 25일 도읍에서 제일조선인총련합회 결성식이 진행되었다. 규슈에서 혹가이도에 이르는 일본의 전 지역에서 500명가까운 대의원들과 600명의 방청이 동포들의 열렬한 축하를 받으며 결성대회가 열리는 아사구사공회당으로 모여왔다. 본사기자

조국통일 3대원칙에 대한 리해

조국통일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 민족의 의사와 리에 맞게 민족자주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원칙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조석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자주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다. 그리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애국의 전모와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3대원칙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갈수 있게 한 조국통일의 기치이며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통일대장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이라고, 조선로동당의 주체적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시신 조국통일3대원칙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있다고 천명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원칙을 일관적으로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혀주시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원칙을 조국통일의 기치로 높이 들고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의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유금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이라고, 조선로동당의 주체적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시신 조국통일3대원칙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있다고 천명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원칙을 조국통일의 기치로 높이 들고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의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유금주

민족의 통일지향에 상전의 버림을 받고 역행한 대결광들의 말로 개죽음을 당한 《유신》 독재자

남조선에서 지금 보수 《정권》의 출현을 앞두고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의 암운기가 되살아났기에 불안과 우려가 날로 높아 가고있다. 남조선의 훌륭한 정치사가 보여주는것처럼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는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을 악랄히 감행한 독재광들은 비참한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대국역적 박정희의 비참한 종말이 그 하나의 실례이다. 남조선의 박정희 《정권》은 회색의 폭압정치로 인민들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승공통일》에 미쳐난런 악명높은 반통일 《정권》이였다. 박정희역도는 1966년 6월초에 《가치회전》이라는것을 벌려놓고 《당장 통일이 실현되면 남조선이 적화될 위험이 있기때문》에 지금은 《승공》을 위한 《실력을 배양》하여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또한 반공체제를 정면비방하고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파쇼정보정치를 실시하면서 자주와 민주, 조국통일을 주장하는 각계층 인민들에 대한 파쇼적 탄압공세를 강화하였다. 그런가 하면 군사비를 대폭 늘이고 미국으로부터 대량살륙무기들과 군사장비들을 끌어들이면서 부침전쟁소동에 광분하였다. 박정희역도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역사적인 7.4북남공동성명발표이후 그것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박정희역도는 7.4북남공동성명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유엔은 외세가 아니다.》 《미군이 남조선에 오래 남아있어야 한다.》 등의 너드리를 늘어놓으며 남조선에 대한 미군의 영구강점을 간청하였는가 하면 《이 몇이 적화될 위험이 있기때문》에 지금은 《승공》을 위한 《실력을 배양》하여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또한 반공체제를 정면비방하고 그 류례를 찾아볼수

특히 박정희역도는 《통일을 위해서는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고 떠들면서 1972년 10월 17일 《유신》파쇼체제를 수립하고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하지만 자주, 민주,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가로막을수 없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유신》파쇼독재를 반대하는 투쟁에 파카히 떨쳐나섰다. 특히 남조선인민들의 10월민주혁명에 의하여 《유신》파쇼독재는 파멸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남조선에서 자주와 사대, 민주와 파쇼, 통일과 반통일사이의 대결이 절정에 이르고 사회적혼란이 극도에 달하자 미국은 저들의 오래동안 써먹어온 친미주구인 박정희가 더는 쓸모없다고 판단하고 종래를 시켜 역도를 비참하게 사살하였다. 이로써 《유신》독재정권과 합의를사함을 모조리 거부하고 유린하는데로 나갔다. 본사기자 박철남



박정희역도의 《유신》파쇼체제를 반대하여 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청년학생들